

# 관리 효과성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경미 · 서리나

## I. 서론

가정관리는 요구의 발생과 함께 시작된다. 요구는 행동을 이끄는 목표나 사건이며 개인과 가족에게 높거나 낮은 수준의 요구로 나타난다(Deacon과 Firebaugh, 1988). 개인과 가족은 직면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의 사용이란 결국 관리의 문제이다. 관리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자원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관리적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개인과 가족은 관리를 함으로써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조정하게 되어 상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계획과 수행에 이르는 관리과정에 따른 관리활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체계란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하는 부분들의 통합된 집합이며, 가정체계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요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계획과 수행의 관리과정을 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통합된 하나의 관리적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리적 효과성은 결과적으로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써 만족감을 산출할 것이다.

가족의 요구와 자원의 투입요소가 만족감(또는 불만족감)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역동적인 과정은 변환과정 (transformation) 또는 통과과정 (throughput)으로 불리운다. 변환과정은 요구나 목표의 충족을 위해 가정이 소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수행을 하는 인지적이면서 실천적인 관리과정이다. 변환과정이 요구의 달성이이라는 만족스런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그 역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수행의 일련의 관리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효과적(또는 효율적)이라는 것은 가장 기능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되며, 효과를 성취하는데는 선택이나 가장 적합한 일을 하는 옳은 작업을 하는 것이다(Rice와 Tucker, 1986). 기존의 선행연구들(최동숙, 1991; 최호숙, 1992; 이연숙, 1996; 고보선 · 임정빈, 1997)에서는 관리활동의 변환과정의 역동성을 결과요소인 만족감(예, 가정생활만족도 또는 생활만족도, 가계재정

복지 등)에 미치는 변환과정의 영향력으로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환과정 자체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효과성 (effectiveness)은 변환과정을 구성하는 계획과 수행의 관리과정이 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다차원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 또한 다차원적인 조건이 충족된 변환과정의 관리효과성은 가족의 요구/목표 달성의 결과인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이는 목표성취를 위해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만족감이 성취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관리 효과성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가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이다. 이 두가지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개발된 관리효과성 척도는 변환과정의 역동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관리 효과성의 측정을 통해서 부족한 관리능력이 어떤 차원에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그것의 개선을 통해 요구 달성의 만족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Ⅱ. 관리 효과성

Sharpe와 Winter(1991)는 가족의 요구나 목표의 관리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의 효과성 (managerial effectiveness)을 제시하였다. 관리 효과성은 개인과 가족의 요구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변환과정을 통하여 자원을 관리할 때 바라는 결과를 성취해내는데 성공적인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가정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다양한 요구와 목표를 갖는 개별 가족이 동일하거나 상이한 관리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좌우되며 보다는 오히려 어떤 질적·양적 차원으로 구성된 관리과정을 거쳐 관리활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지에 더 관련된다. 이것은 관리과정의 각 단계에 대해 다차원적인 질적·양적 차원으로 구성된 가정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Sharpe 등(1991)은 총체적으로 가정의 요구에 대한 자원의 관리적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4가지 범주로 구성된 관리효과성의 가설들(총 25개)을 개발하였다. 각 범주에 속하는 가설들은 편의상 체계적 관점의 하위개념적 구성요소들로 설명될 수 있다.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적 관점을 이용하여 관리과정을 보면, 투입요소는 가족의 요구와 자원이며, 통과과정(변환과정)은 계획과 수행이고, 산출은 요구에 대한 주관적 반응과 자원의 변화로 구분지어진다. 이와 관련지어 관리의 효과성은 변환과정의 계획과 수행의 관리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투입요소에 해당되는 요구와 자원의 인식 및 평가, 계획과

수행의 하위과정(대안, 표준, 행동의 순서화, 조정활동 등)에 대한 질적·양적인 가정들로 구성된다.

4가지 범주에서 첫번째는 관리활동이 일어나도록 돋는 '진행 조건(Performance condition)'이다. 관리활동이 효과적이려면 관리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진행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요구나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에는 대안이 형성되어야 하고 표준과 행동의 순서도 정해져야 한다. 두번째 범주는 관리행동이 발생하는 적절한 '시기적인 조건(Timing)'이며 이것은 관리활동이 적절한 시기적, 시간적 조건에 맞추어졌을 때 비로소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획에 따른 수행활동은 가족의 요구와 목표의 특성에 맞추어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에 행해져야 시기적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셋째는 '높은 수준의 조건(High-Level)'으로 관리과정의 몇몇 하위영역들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계획안을 짜는 목표가 최대한 정확하게 정의되어져야 효과적이다. 네 번째는 '중간 범위나 수준의 조건(Middle Range)'으로 그것은 가족이 수행하는 관리활동이 융통성과 중간 범위의 적절함을 유지해야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 달성하고자 하는 표준은 높거나 낮지 않아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갖고 가족의 상황을 맞게 융통적이게 기능해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범주를 구성하는 가설들은 각기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상이한 다른 차원의 가정이 아니며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가정의 요구와 목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활동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계획에서 수행에 이르는 변환과정의 여러 하위과정들이 질적·양적인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구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리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4가지 범주로 나누어진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다른 범주와의 관련성도 이해해야 한다.

각 범주를 이루는 개별문항들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그 상호관련성과 함께 범주들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진행조건'의 범주에서 계획과 수행의 변환과정을 위한 투입요소인 요구와 목표에 관한 가설은 계획과 수행의 관리과정이 진행되려면 가족이 목표를 정하고 요구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진행조건은 또한 범주는 다르지만 시기적 조건, 중간범위의 조건의 가설들과도 관련된다. 관리과정이 진행되기 위

하여 목표와 요구가 정해지고(진행조건), 동시에 그러한 요구나 목표는 시기적으로 요구 발생이전이나 직후에 인식이 되어야 하고, 가족의 요구가 인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요구나 목표의 특성에 맞는 달성을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시기적 조건). 그리고 가족의 요구와 목표는 높은 수준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되고 최대한 실천가능해야 하며, 가치에 근거해서 요구들을 선택할 때, 가족의 현 상황에 맞는 가능성있는 적절한 요구들만을 몇가지 선택하여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할 때 효과적으로 관리가 된다(중간범위의 조건).

관리활동을 위한 또하나의 투입요소는 자원이며, 그것은 요구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이 된다. 자원은 현재의 요구에 맞게 관리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과거에 미리 준비되어져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을 갖고서 시간, 금전, 인간의 에너지에 현재 투자하는 것은 장래에 유용한 가족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자원과 관련된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원을 미리 투자하는 것(진행조건)에 가족이 현재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올바르게 인식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높은 수준의 조건).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중의 한가지는 자원의 이용성(활용성)에 관한 것이다. 자원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과 함께 관리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하는 것은 결국 요구에 맞게 자원을 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요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수행을 한다. 계획활동과 관련된 '진행조건'으로는 계획이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기 계획을 가시화하는 것은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또는 실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계획은 또한 '시기적인 측면'에서 수행이전에 행해져야 하는 인지적인 작업으로 수행의 초점과 방향을 제시해주므로 시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적절해야 관리활동의 효과성은 증진될 것이다.

또한 계획의 관리과정과 관련된 몇가지 하위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족의 상황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대안들은 요구나 목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족원들에게 선택의 범위를 규정지어 주고 동시에 선택에 따른 다양한 결과들의 예측하게 해주므로 계획과정에서 필요한 '진행조건'이 된다. 또한 이러한 대안들이 기준에 근거하여 요구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대안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진행조건). 한편 대안의 형성과 평가가 관리과정을 위한 진행조건이라면 적절한 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관리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의 현실에 맞는 적절

함을 반영하는 ‘중간수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과정의 또 다른 하위과정은 표준을 만들고 일(행동)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진행조건). 일단 가족의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달성되어야 할지 그 표준과 일의 순서가 정해지면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표준은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되고(높은 수준의 조건) 가족상황에 맞추어 융통적일 수 있어야 한다(중간범위의 조건). 가족이 도달하고자 하는 표준과 일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애매한 표준으로 인해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수행의 결과가 불만족하게 나타나게 하는 원인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는 표준은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할 수 있게 적절해야 하며,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서 변화하는 가족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관리적으로 효과적인 것 이 된다.

변환과정에는 계획에 이어 수행과정이 나타난다. 수행한다는 것은 계획에 따라 실제로 관리활동을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진행조건). 또한 계획과정과 수행과정간에는 적절 한 균형이 요구된다(중간범위의 조건). 이것은 계획이나 수행과정중 어느 한 과정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계획에 따른 수행은 무 조건적인 수행을 의미하지 않고, 가족의 요구나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시기적 조건). 수행활동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립된 계획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가족에게는 변화나 갑작스런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계획자체를 변경하든지, 표준을 낮추든지, 가족자원을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조정 활동이 융통적이게 일어나야 한다(중간범위의 조건).

마지막으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된 조건들이 있다. 해결해야 할 요구에 대해 이용가능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진행조건). 그리고 정보를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요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높은 수준의 조건).

이상으로 관리효과성에 관한 개별 가설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범주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았다. 개인과 가족이 갖는 요구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수행의 관리과정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계획과 수행의 관리과정을 이끄는 투입요소와 관리과정의 하위과정들에 관한 이상의 4가지 조건은 관리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고 여겨지는 질적이고 양적인 구성요소들이다. 그리고 가정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

적으로 진행된 관리과정은 그것의 결과요소인 만족감(또는 불만족감)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자원사용과 관련된 관리활동의 성공은 전체 관리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관리의 효과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결국 가족에게 만족감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관리활동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관리 효과성의 척도로써의 이용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① 관리 효과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 ② 관리 효과성 척도에 대한 개별문항 및 하위영역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③ 관리 효과성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①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고 가사조력자가 없는 주부이다. 자료는 1998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400부가 배포되고 그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31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②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 가정환경특성과 관리 효과성, 가정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효과성 척도는 Sharpe와 Winter(1991)가 개발한 관리 과정에서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25개의 가설을 기초로 총 25문항을 작성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최동숙(1991), 홍은실(1996) 등의 연구를 기초로 총 25문항이 작성되었다. 두 가지 척도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두 척도모두 .75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는 관련전공자로부터 일차적인 검증을 받았다.

##### ③ 자료 분석

가정환경특성에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가 등이 적용되었고, 관리효과성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가 조사되었고, 관리 효과성에 대한 개별문항과 하위영역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이, 그리고 관리효과성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Program이 사용되었다.

#### ④ 조사대상자의 가정환경특성

조사대상인 주부의 연령은 26세부터 58세까지 분포되고 평균 38세이며, 고졸과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이 각각 53.2%, 41%로 표집되었다. 조사대상자중에서 전업주부는 61%이고 취업주부중 전일제는 26.8%, 시간제는 12.3%를 차지한다. 또한 주부직(60.6%)을 제외한 취업주부의 참여 직종은 판매·서비스직(19.4%), 전문기술직(8.1%), 사무직(4.5%), 관리직(8%), 생산직(1.9%), 전문직(1.6%), 기타(1.3)의 순이다.

남편의 연령은 27세부터 60세까지로 표집되었고 그 평균은 41.1세이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고졸(24.8%), 중졸이하(2.6%)의 순이다. 남편의 직업유형은 사무직(30.3%), 전문기술직(21%), 판매·서비스직(20%), 관리직(16.1%), 전문직(8.7%), 기타 무직이나 실직(2.2%), 생산직(1.6%)의 순이다.

자녀수는 0명부터 6명까지이며 평균 2.33명이다. 맏자녀는 0세부터 30세까지 분포되며 평균 12.41세이고, 막내자녀는 0세부터 28세까지이고 평균 8.36세이다. 부부의 결혼지속년수는 1년부터 41년까지이고 평균 13.57년이며, 월평균소득은 6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분포되었고 평균 237.41만원이다. 또한 가족유형은 핵가족이 61.6%이고 확대가족은 38.4%이다.

## IV. 결과 및 논의

### 1. 관리효과성의 일반적 경향

〈표 1〉 개별문항과 하위영역의 관리효과성 수준

| 하 위 영 역  | 개 별 문 항  | 평 균  | 표준편차   |
|--|--|--|--|
| 진 행 조 건<br>(Performance Condition)<br>평 균 : 3.75<br>표준편차 : .68 | 1. 목표설정<br>2. 요구의 우선순위 정하기<br>3. 미래를 위해 현재 투자<br>4. 계획수립<br>5. 계획의 기록(가시화)<br>6. 가능한 대안의 형성<br>7. 대안의 평가<br>8. 표준설정과 행동의 순서정하기<br>9. 계획에 따른 수행<br>10. 계획진행과 관련된 정보수집 | 3.64<br>4.18<br>3.98<br>3.71<br>3.41<br>3.58<br>3.46<br>3.80<br>4.14<br>3.58 | 1.00<br>0.99<br>1.02<br>1.09<br>1.18<br>1.08<br>1.11<br>1.06<br>0.98<br>1.05 |
| 시기적 조건 (Timing)<br>평 균 : 3.68<br>표준편차 : .75                    | 11. 요구인식의 예측성과 동시성<br>12. 요구의 반응 시기<br>13. 수행이전의 계획의 수립<br>14. 계획의 수행 시기의 적절성  | 3.65<br>3.71<br>3.84<br>3.51   | 0.98<br>0.98<br>1.03<br>1.02   |
| 높은 수준의 조건<br>(High Level)<br>평 균 : 3.77<br>표준편차 : .74          | 15. 자원의 인식과 평가<br>16. 자원의 이용성(활용)<br>17. 목표의 명확성과 실행가능성<br>18. 표준과 행동 순서의 명확성<br>19. 변환과정과 관련된 정보 활용   | 3.68<br>3.73<br>3.90<br>3.78<br>3.79   | 1.05<br>1.01<br>1.00<br>1.10<br>1.01   |
| 중간범위의 조건<br>(Middle Range)<br>평 균 : 3.91<br>표준편차 : .70         | 20. 해결가능한 요구의 선택<br>21. 적절한 표준과 행동의 순서정하기<br>22. 적절한 대안의 수<br>23. 표준의 융통성<br>24. 계획과 수행의 균형<br>25. 사건 조정시의 융통성   | 4.10<br>3.90<br>3.70<br>3.86<br>3.71<br>4.20                                 | 0.99<br>1.02<br>0.97<br>0.99<br>1.00<br>0.97                                 |
| 관 리 효 과 성  |  | 3.78   | .61  |

관리효과성의 수준은 평균 3.78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표 1). 하위영역별 수준은 중간범위의 조건이 평균 3.91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높은 수준의 조건, 진행조건, 시기적 조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기적 조건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체 효과성 수준을 특히 더 낮추는 영역으로 보인다(평균 3. 68점).

전체 평균 점수(3.78점)를 근거로 관리적 효과성의 수준을 상(上)과 하(下)로 구분하

여 관련된 개별문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관리적인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진행조건'의 경우를 보면, 上의 관리활동은 가족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활동,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미래의 자원 형성을 위해 시간, 금전, 인간 에너지 등에 현재 투자하는 관리활동, 가족이 도달하려는 요구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행동의 순서를 정하는 활동(평균 4.18점~3.80점)이다. 下의 내용은 요구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는 활동, 달성하고자 하는 가족의 목표를 설정하는 활동, 요구나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능한 여러개 만드는 활동과 계획 진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실행가능성있는 대안들만을 평가하여 선택하는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정리해 보는 관리활동들(평균 3.71점~3.41점)이다.

시기적으로, 순서적 측면에서 충족되어야 관리 효과가 높아지는 '시기적 조건'의 上의 관리활동은 관리행동이 수행되기 전에 미리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평균 3.84점)이다. 下의 문항 내용은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요구나 목표를 해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는 활동, 요구가 발생되기 전이나 그 직후에 요구를 인식하는 관리활동, 요구나 목표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계획을 수행하는 관리활동들(평균 3.71점~3.51점)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효과적인 '높은 수준의 조건' 영역에서 上의 내용은 목표를 최대한 분명하게 정하여 실천가능성을 높이는 활동, 변화과정과 관련된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관리활동, 가족이 도달하고자 하는 표준과 행동의 순서를 최대한 명확하게 하는 활동(평균 3.90점~3.78점)이다. 下의 관리활동 문항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현재 소유한 자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용범위를 정확히 평가하는 관리활동들(평균 3.78점~3.68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간범위의 융통성과 적절한 수준이어야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는 '중간범위의 관리활동 조건'을 보면, 上의 관리활동은 가족에게 변화와 적응을 야기시키는 외부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계획이나 표준, 행동의 순서 등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하는 활동, 바람직한 요구들중에서 실제 해결가능한 요구만을 선택하는 활동,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에서 가족이 달성할 수 있는 표준과 행동의 순서를 정하는 관리활동,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설정하여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한 융통성있는 표준을 설정하는 활동(평균 4.20점~3.86점)이다. 下의 내용은 인지적이

고 정신적인 과정인 계획과 실천적인 과정인 수행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과정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활동(평균 3. 71점)과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의 수를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정하는 활동(평균 3. 71점)이다.

한편 관리 효과성의 수준은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므로 내용을 구성하는 개별문항들의 변별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문항 분석을 위해 25개 개별문항의 표준편차를 보면 0.97에서 1.18의 분포를 보이는데 표준편차가 .10이상인 문항이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서정희, 1996) 일차적으로 .1미만의 문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관리효과성 척도의 영향력

전체 문항을 하나의 관리 효과성 척도로 하여 각 하위영역과 개별문항들의 상관관계를 각각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관리효과성 척도와 개별문항 및 하위영역의 상관관계

| 하 위 영 역                         | 관리효과성   | 개 별 문 항  | 관리효과성  |
|---------------------------------|---------|--|--|
| 진행조건<br>(Performance Condition) | .916*** | 1. 목표설정<br>2. 요구의 우선순위 정하기<br>3. 미래를 위해 현재 투자<br>4. 계획수립<br>5. 계획의 기록(가시화)<br>6. 가능한 대안의 형성<br>7. 대안의 평가<br>8. 표준설정과 행동의 순서정하기<br>9. 계획에 따른 수행<br>10. 계획진행과 관련된 정보수집 | .442***<br>.555***<br>.479***<br>.640***<br>.556***<br>.573***<br>.647***<br>.723***<br>.657***<br>.646*** |
| 시기적 조건<br>(Timing)              | .815*** | 11. 요구인식의 예측성과 동시성<br>12. 요구의 반응 시기<br>13. 수행이전의 계획의 수립<br>14. 계획의 수행 시기의 적절성  | .544***<br>.570***<br>.688***<br>.624***   |
| 높은 수준의 조건<br>(High Level)       | .859*** | 15. 자원의 인식과 평가<br>16. 자원의 이용성(활용)<br>17. 목표의 명확성과 실행가능성<br>18. 표준과 행동 순서의 명확성<br>19. 변화과정과 관련된 정보 활용   | .565***<br>.561***<br>.642***<br>.614***<br>.682***  |
| 중간범위의 조건<br>(Middle Range)      | .827*** | 20. 해결가능한 요구의 선택<br>21. 적절한 표준과 행동의 순서정하기<br>22. 적절한 대안의 수<br>23. 표준의 융통성<br>24. 계획과 수행의 균형<br>25. 사건 조정시의 융통성   | .457***<br>.626***<br>.570***<br>.664***<br>.631***<br>.534***   |

\*\*\* P < .001

하위영역의 경우 진행조건이 관리 효과성과 가장 높은 관련을 가지고, 그 다음은 높은 수준의 조건, 중간범위의 조건, 시기적 조건의 순으로 정적 관계를 보인다. 즉 각 조건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관리활동의 효과성은 높아진다. 관리 효과성을 구성하는 4개의 범주 영역들은 관리 효과성 척도와  $r=.92$  ~  $r=.82$ 에 이르는 강한 정적 관련성을 갖는다.<sup>1)</sup>

1) 상관계수  $r=.20$ 이하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r=.4$ 정도면 didr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r=.4 \sim r=.6$ 정도면

25개의 개별문항에 대해 관리 효과성 척도가 갖는 관련성은 목표설정 활동의  $r=.42$ 에서부터 표준과 행동의 순서 정하기 활동의  $r=.72$ 에 이르는 보통 수준이다. 관리 효과성과 가장 높은 관련을 가지는 하위영역별 문항은 진행조건의 표준설정과 행동의 순서정하기 ( $r=.72$ )이고, 그 다음은 시기적 조건의 수행이전의 계획 수립, 높은 수준의 조건에 해당하는 변환과정과 관련된 정보활용, 중간범위의 조건의 표준의 융통성으로 나타났다.

관리효과성 척도에 각 하위영역이 미치는 주요 영향력과 하위 영역에 영향력이 미치는 개별문항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

보통의 수준,  $r=.80$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를 의미한다(한국가족학 연구회, 1994).

〈표 3〉 관리효과성 척도에 대한 하위영역의 단계적 회귀분석

| 관 리 효 과 성                        |         |     |   |   |  |
|----------------------------------|---------|-----|---|---|--|
| 하위영역                             | $\beta$ | R2  | 개 별 문 항   | $\beta$   | R2   |
| 진행 조건<br>(Performance Condition) | .45***  | .84 | 8. 표준설정과 행동의 순서 정하기<br>5. 계획의 기록(가시화)<br>2. 요구의 우선순위 정하기<br>7. 대안의 평가<br>9. 계획에 따른 수행<br>4. 계획수립<br>3. 미래를 위해 현재 투자<br>1. 목표설정<br>10. 계획진행과 관련된 정보수집<br>6. 가능한 대안의 형성 | .155***<br>.173***<br>.145***<br>.162***<br>.143***<br>.160***<br>.149***<br>.147***<br>.154***<br>.158 | .55<br>.16<br>.09<br>.06<br>.04<br>.03<br>.02<br>.02<br>.02<br>.01 |
| 중간 범위의 조건<br>(Middle Range)      | .27***  | .10 | 23. 표준의 융통성<br>21. 적절한 표준과 행동의 순서정하기<br>24. 계획과 수행의 균형<br>20. 해결가능한 요구의 선택<br>25. 사건 조정시의 융통성<br>22. 적절한 대안의 수  | .233***<br>.244***<br>.240***<br>.238***<br>.232***<br>.233   | .57<br>.18<br>.11<br>.07<br>.04<br>.03                             |
| 시기적 조건<br>(Timing)               | .24***  | .04 | 13. 수행이전의 계획의 수립<br>12. 요구의 반응 시기<br>14. 계획의 수행시기의 적절성<br>11. 요구인식의 예측성과 동시성  | .345***<br>.328***<br>.342***<br>.327   | .61<br>.24<br>.08<br>.08   |
| 높은 수준의 조건<br>(High Level)        | .20     | .02 | 19. 변환과정과 관련된 정보 활용<br>16. 자원의 이용성(활용)<br>17. 목표의 명확성과 실행가능성<br>15. 자원의 인식과 평가<br>18. 표준과 행동순서의 명확성   | .274***<br>.275***<br>.271***<br>.286***<br>.299  | .56<br>.23<br>.10<br>.06<br>.06                                    |

\*\*\* P < .001

그 결과 관리효과성 척도에 진행조건이 가장 큰 설명력(84%)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중간범위의 조건(10%), 시기적 조건(4%), 높은 수준의 조건(2%)의 순이다. 각 하위 영역을 구성하는 개별문항들의 주요 영향력을 보면, '진행조건'에 관한 문항에서 표준 설정과 행동의 순서 정하기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며(55%), 그 다음은 계획의 기록

(16%), 요구의 우선순위 정하기(9%), 대안의 평가(6%), 그리고 나머지 문항들은 4%이하의 설명력을 갖는다. ‘중간범위의 조건’은 표준의 융통성(57%)이 가장 설명력있는 변수이고, 그 다음은 적절한 표준과 행동의 순서 정하기(18%), 계획과 수행간의 균형(11%), 해결가능한 요구의 선택(7%)이고, 나머지는 모두 4%이하이다. ‘시기적 조건’의 하위영역에서는 수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활동이 가장 설명력 있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요구의 반응시기, 계획의 수행시기의 적절성, 요구인식의 시기적절성의 순으로 문항 모두가 8%이상의 적절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 ‘높은 수준의 조건’에 관한 문항에서 가장 큰 설명력은 변환과정과 관련된 정보활용(56%)이고, 그 다음은 자원의 이용성(23%)이고, 나머지는 6%~10%의 설명력을 가진다. 개별문항의 내용을 구성하는 25개의 가설 모두가 관리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가정들이지만 문항에 따라 관리효과성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문항과 낮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향력이 낮은 문항을 재검토하여 척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고, 영향력이 높은 문항은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 3. 관리효과성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

〈표 4〉 관리효과성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 하 위 영 역                            | 가정생활<br>만족도 | 개 별 문 항  | 가정생활<br>만족도  |
|------------------------------------|-------------|--|--|
| 진행조건<br>(Performance<br>Condition) | . 916***    | 1. 목표설정<br>2. 요구의 우선순위 정하기<br>3. 미래를 위해 현재 투자<br>4. 계획수립<br>5. 계획의 기록(가시화)<br>6. 가능한 대안의 형성<br>7. 대안의 평가<br>8. 표준설정과 행동의 순서정하기<br>9. 계획에 따른 수행<br>10. 계획진행과 관련된 정보수집 | . 452***<br>. 226***<br>. 243***<br>. 241***<br>. 193***<br>. 180*<br>. 216***<br>. 224***<br>. 192***<br>. 252*** |
| 시기적 조건<br>(Timing)                 | . 815***    | 11. 요구인식의 예측성과 동시성<br>12. 요구의 반응 시기<br>13. 수행이전의 계획의 수립<br>14. 계획의 수행 시기의 적절성  | . 302***<br>. 339***<br>. 263***<br>. 311***   |
| 높은 수준의 조건<br>(High Level)          | . 859***    | 15. 자원의 인식과 평가<br>16. 자원의 이용성(활용)<br>17. 목표의 명확성과 실행가능성<br>18. 표준과 행동 순서의 명확성<br>19. 변환과정과 관련된 정보 활용   | . 293***<br>. 246***<br>. 295***<br>. 279***<br>. 295***   |
| 중간범위의 조건<br>(Middle Range)         | . 827***    | 20. 해결가능한 요구의 선택<br>21. 적절한 표준과 행동의 순서<br>22. 적절한 대안의 수<br>23. 표준의 융통성<br>24. 계획과 수행의 균형<br>25. 사건 조정시의 융통성  | . 136*<br>. 244***<br>. 184*<br>. 222***<br>. 280***<br>. 534***   |
| 관理 효 과 성                           | . 424***    |  |  |

\* P < .05      \*\*\* P < .001

관리효과성과 가정생활만족도간에는 전체적으로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 $r=.42$ ). 관리효과성의 하위영역별로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 정도를 보면 진행조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높은 수준의 조건, 중간범위의 조건, 시기적 조건의 순으로  $r=.92$ 부터  $r=.82$ 의 강한 관련성을 보인다. 또한 각 개별문항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정적관계의 정도는  $r=.12$

부터  $r= .52$ 에 이른다. 관리효과성의 문항들중에서 사건조정시의 융통성과 목표설정이  $r= .4$  이상의 관련성을 지니고 그 나머지 문항들은 가정생활만족도와  $r= .30$ 하의 정적관계만을 보인다.

각 개별문항과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성이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4개의 범주 영역과 만족도는 강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관리활동의 효과성이 마치 시너지적 상승 작용(시티브 코비, 1994)처럼 각각의 다른 관리활동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관리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관리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가족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능적 역할을 하는 개별문항들이 모두 관리의 효과성을 증진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리효과성 척도에는 질적·양적 요소가 포함된 다차원적인 하위영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관리활동의 성과(결과)를 좌우하는 변환과정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인지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리 효과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관리행동이 효과적일수록 만족감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리효과성의 관련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관리 효과성은 Sharpe 등(1991)이 제안한 가설들을 근거로 25개의 개별문항을 구성하였고 그것을 4개의 하위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4개의 하위범주는 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4가지 차원의 조건으로써 진행조건(performance condition), 시기적 조건(timing), 높은 수준의 조건(high level), 중간범위의 조건(middle range)이다. 관리효과성 하위영역의 구분이 타당하고 그 영역을 구성하는 개별문항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위영역과 개별문항을 모두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척도 개발을 위해 하위영역과 개별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적 조사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관리효과성 수준은 평균 3.78점으로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한다. '중간범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관리적 효과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높은 수준의 조건, 진행조건, 시기적 조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낮은 영역의 개별문항을 살펴봄으로써 관리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관리효과성 척도의 분항 변별력은 표준편차 0.97~1.18의 분포를 보이는데 .1미만의 8개 문

항은 다시한번 문항의 진술을 검토하여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효과성과 하위영역 그리고 개별문항의 관계를 보면 개별문항과는  $r=.4 \sim r=.6$ 의 보통수준의 관련성을 보이고 4개의 범주영역과는  $r=.8$ 이상의 강한 관련성을 보인다. 이는 각 개별문항도 관리효과성 척도를 구성하는데 관련성이 있지만 4개 하위영역으로 범주화하여 관리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관리효과성 척도에 주요 영향력이 있는 하위 영역은 진행조건(84%), 중간범위의 조건(10%), 시기적 조건(4%), 높은 수준의 조건(2%)로 25개의 가설 모두 중요한 관리효과성 가정임을 감안하여 낮은 설명력을 갖는 영역을 구성하는 개별문항에 대해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리효과성과 가정생활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모두 정적 관련성이 있어서 계획과 수행의 관리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킬수록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증진될 수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도 개별문항 각각의 관련성보다는 하위영역별 관련성이 훨씬 강하므로 범주로 나뉘어진 관리효과성 척도가 타당하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몇가지 문항 내용의 개선을 통해서 관리효과성 척도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적 활동의 변환과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고보선 · 임정빈 (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15권 3호.
- 이연숙 (1996).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14권 4호.
- 서정희 (1996). 가정학 연구방법론. 하우.
- 스티븐 코비 저, 김경섭 · 김원석 역 (1994).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김영사
- 최동숙 (1991). 가정자원 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호숙 (1992).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취업주부가정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갈등 관리 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가족학연구회 (1994). 가족학 자료분석 방법. 하우.

홍은실(1996). 도시주부의 가치와 계획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Deacon, R. & Firebaugh, F.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Rice, A. S. & Tucker, S. M(1986). Family Life Management. 6th ed. N.Y.: John Wiley and Sons Co.

Sharpe, D. L. & Winter, M. (1991). Toward Working Hypotheses of Effective Management: Conditions, Thought Processes, and Behaviors. Famirl and Economic Issues (Lifestyles), 12 (4), 303-323.